

# 청년실업과 열정페이 그리고 교회는?

## 01 | 청년실업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15~27세의 청년실업률이 1997년 IMF 이후 최고인 12.5%라고 한다. 이는 비슷한 시기의 미국 12.2%, 프랑스 26.1%, 스페인 51.2%에 비하면 그리 높은 것이 아니라고 평가할지 모른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을 계산하는 방식을 보면 미국은 16~24세, 유럽은 15~24세로 그 범위가 우리의 기준보다 좁다. 대학 진학률이 높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24세 이하의 청년들은 대부분 대학에 재학 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다. 또한 취업 때문에 졸업을 미루고 장기간 휴학하는 경우나, 남자의 경우 군대 기간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 계산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실업률 통계 자체에 맹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 노동기구(ILO)가 권장하는 고용보조지표에 의해 계산하면 현재 실업률과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정부를 제외한 전문가와 언론은 이 지표를 실질실업률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12.5%의 청년실업률은 37.5%로 경충 뛰는 것이다. 게다가 청년들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구직 기간의 기초 생활 보장 등은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유럽 여러 나라들의 고용 유연성을 예로 들며 해직을 쉽

게 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한다. 노동시장에서 적응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의 해직을 쉽게 함으로써 청년층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명분이다. 또한 임금피크제(salary peak)의 실행으로 절감된 비용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자들은 노년층이 원하는 직장과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이 서로 다르기에 노년층의 일자리를 줄이거나 이들의 임금을 삭감한다고 하여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단순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 02 | 왜곡된 인턴제도

곳곳에서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딱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시원한 방책은 보이지 않는다. 세계경제도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유가의 하락 등으로 불황 속에 있으며, 이는 수출을 기반으로 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들이 2000원을 팔면 15원 남는다고 하니 말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내수를 증진하고자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를 지정해 대통령이 나서서 소비를 장려했지만 이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은 당연히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기업의 활동을 위축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불황 속에서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기업은 기존의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쉬운 길을 선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 비정규직을 늘리고, 인턴제를 활성화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인재를 용이하게 선택하는 것과 동시에 싼값에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편법을 택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일보 장원석 기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인턴이란 법률 용어가 아니다.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험 고용을 뜻하는 ‘시용’이나 정식 채용 후 직업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간을 뜻하는 ‘수습’과 의미는 비슷하지만 범망 밖에 있는 용어다. 그러니 터무니없는 ‘무급 인턴’이 넘쳐 난다. 고용부가 보도 자료에 ‘인턴’이란 단어를 쓰려면 정확한 의미부터 규정해야 한다.”(『앵그리 2030』, 59쪽) 이러한 지적은 매우 일리가 있다. 기업에서는 소위 “열정페이”, 즉 기본급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스펙이 필요한 청년들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정시 채용을 줄이고 수시 채용으로 즉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하는 추세이다. 이에 더하여 한국적 기업 문화에서는 나이를 중시하기에 신입사원이 되도록 어리기를 바란다. 업무 능력도 있고 어린 나이여야 한다면 인턴 경력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 청년들은 열악한 조건에 정규직 채용도 결코 보장되지 않는 인턴이라도 하려고 기를 쓰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2년부터 인턴을 뽑아 온 어느 외국계 명품 업체는 구인 광고를 통해 영어에 능통한 인턴 사원을 뽑는다면서 식대로 월 30만 원을 제공한다고 했다. 이 업체에서 파는 가방은 하나에 1,000만원이 넘는다. 정부 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외무부에서 해외 대사관 인턴을 뽑으면서 식대만 제공하고 비행기 비용과 체류 비용 일체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실무를 배울 수 있고 정규직 지원을 위한 스펙을 쌓을 수 있다는 이유로 청년들의 노동력이 싸구려 취급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인턴 과정을 통해 청년들이 실무를 배울 기

회가 주어질까? 대부분 복사나 서류정리 등의 허드렛 일 외에 자신의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어떤 의미에서 인턴제도는 국가와 기업이 사회의 일꾼을 키우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며 투자해야 하는 중요한 제도일 수 있다. 필자가 영국에서 근무할 때 만난 스위스 청년들은 꽤 좋은 영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한국 유학생중에서도 집안 형편이 좋은 학생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였다. 그런데 이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거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그 기업의 인턴사원이었다. 기업에서는 이들이 원하면 영어나 프랑스어 등을 배울 수 있는 언어 연수를 일년에 두 달 동안 시켜 준다고 했다. 비용 일체는 기업이 부담하였다. 이렇게 교육시킨 인턴 사원이 자신의 회사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인턴 기간에 A라는 기업에 적성이 맞지 않아 B라는 기업으로 가고 다른 사람이 A 기업에 와도 이를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업들이 인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지지 않는다면 우리 회사에서 돈을 들여 키운 인턴을 다른 회사에 빼앗겨 손해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진다면 그런 사고방식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연대의식, 책임의식이 없는 인턴제도는 말 그대로 불황 속에서 인력 감축으로 비용절감을 노리는 기업이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꼼수로 밖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다.

### 03 | 기독교 윤리적 평가

그러면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수고하고 노동하는 사람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것이 인간다운 대접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9절을 통해 “모세

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 하심이나”라고 말한다. 이는 바울이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소가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명기의 말씀은 맥락상 일하는 소에 대해 인색하게 대하지 말라는 동물 복지에 대한 뜻을 담고 있다. 동물에게 일을 시킬 때도 무자비하게 착취하지 말고 정당한 대접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동물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하물며 인간에게는 어떻겠느냐고 고린도 교회에 역설하고 있다.

소는 인간이 곤궁하면 식량으로 잡아먹어도 되는 짐승이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을 위해 일하는 소를 인위적으로 배고프게 하여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물며 인간이 인간을 위해 일하는데, 그 일이 정규직이 아니라 인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현대 사회에서 연명하기 어려운 급여를 쥐 가면서 열정페이라고 정당화한다면 이는 기독교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은 것이다. 어찌면 인간을 짐승이나 기계처럼 비인격적인 도구로 생각하는 무섭고도 비도덕적인 사고방식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또한 신명기 15장과 레위기 25장에서도 노동의 정당한 대가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본문을 보면 이유는 모르지만 상당한 돈을 빌려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자신을 팔아 종이 된 자들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고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는 종이 된 채무자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으로 여기라고 말한다. 품꾼이 품삷을 받는 고용된 노동자를 의미한다면 동거인은 나그네(sojourner)를 말하는 것이

다. 나그네란 이스라엘 사람 자신들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고용된 이방인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했다. 이들은 고아나 과부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로서 사회의 돌봄을 받는 대상이었다. 특별히 3년마다 걷는 십일조는 저축하여 레위인과 고아, 과부, 나그네의 궁핍함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하였다(신명기 14:28, 29). 그러므로 채권자는 종이 된 채무자에 대해 두 가지 의무 사항이 있었다.

첫째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종이나 노예가 아닌 노동자로 대하여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자신이 종으로 일하는 기간을 돈으로 환산하여 빚진 돈을 다 갚을 경우 자유롭게 될 수 있었다. 만약 너무 많이 빚져 오랜 기간 일해야 하는 경우는 7년째 희년이 되면 어떤 경우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자유롭게 해 주어야 했다. 이에 더하여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유인이 될 경우 그를 그냥 내보내서는 안 되고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넉넉히 챙겨 줘야 했다. 아무리 자신의 몸을 판 사람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하고 대접해야 하며, 그의 노동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청년실업을 볼모로 삼은 열정페이는 결코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의식주를 보장해 주어야 했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들을 사회적 약자로서 여기고 이들의 필요를 위해 연대 책임을 져야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어 채무자는 온전히 채권자의 빚을 노동을 통해 갚을 수 있었고 빠른 시일 안에 종이라는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이것은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로서 한 사람이나 가족이 다시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이었던 것이다.

## 04 | 따뜻한 교회

최악의 청년실업률, 늘어나는 비정규직, 왜곡된 인턴 제도는 청년들을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로 부르거나, 인간관계, 내 집 마련도 포기했다고 하여 오포세대로 불리게 만들고 있다. 이를 볼 때, 청년들이 과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우리 사회에 구축되어 있는지 의심스럽다. 혹시 그런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청년들의 문제를 마치 내 일처럼 생각하고 이들을 위해 연대 책임을 지려고 하는 따뜻한 어른들의 진심 어린 공감의 없다면, 거지에게 적선하는 식의 의무와 멸시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여기에 교회의 역할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개신교인의 비율은 20%가 넘는다. 만약 이들이 청년실업의 문제를 자신의 자녀가 아닌 우리 자녀의 일로 생각을 전환한다면 문제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복잡한 경제 원리나 정치문제가 아닌 순전히 가난한 자를 측은히 여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심정으로 청년들을 바라보길 바란다. 경제학자나 관리, 기업인, 정치가들은 더 치밀하게 이 문제를 분석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냉정하게 청년들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해결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청년들은 숨막혀 고사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경제, 정치 전문가의 시각이 아닌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배려와 환대의 공동체로 청년들의 숨통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 05 | 교회의 책무

글을 맺으면서 누가복음을 통해 이 시대의 교회의 책무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한 일을 4장에 기록하

고 있다. 그것은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읽으신 것이다. 예수님은 낭독 말미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바로 회년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에 회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일이었다. 이는 영적으로는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예수님이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규정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년실업과 비정상적인 고용시장에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적용한다면 교회는 이들에게 노동의 정당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정의의 대변인, 청년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진정한 사회안전망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뜻 아닐까? 마지막으로 영국의 여성 신학자인 도로시 세이어즈(Dorothy Sayers)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 글을 맺으려 한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놀랄 만한 현상이긴 한가? 어떤 종교가 자기 삶의 90%에 관심이 없다면 누군들 그런 종교에 관심을 두겠는가?

『기독교 교리를 다시 생각하다』, 138쪽.



글 | 이춘성

국제 라브리 선교회에서 간사와 국제 위원으로 사역했으며 합동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였고 고신대학원에서 기독교 윤리학 박사 과정(Ph. D.)에 있으며, 세종시에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